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2018. 07



진

안

군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목 차

I . 조사개요	1
II .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	3
1. 천혜의 자연환경과 내륙교통망의 허브	3
2. 선사시대 때 선진지역으로 발돋움	6
3. 삼국시대 때 거점지역으로 성장	11
4. 장수가야의 서북쪽 진출과 그 의미	15
5. 삼국시대 때 거점지역으로 성장	18
6.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현황	22
III . 조사내용	30
IV .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40

I. 조사개요

■ 조 사 명 :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발굴조사

■ 허가번호 : 제2018-0662호

■ 조사지역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103-1 일원

■ 유적의 현황

- 동향면의 동향(銅鄉)은 한글로 ‘구리고을’, 즉 구리가 산출되는 고을이란 뜻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용담현(龍潭縣) 고적(古跡條)조 등 조선시대 문헌기록을 보면, 관아 동쪽 35리에 고려시대에 특정 물품을 생산하던 특수행정구역인 동향소(銅鄉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 유적은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창촌마을 내에 위치한다. 이곳은 문필봉(해발 598.4m)에서 서쪽으로 뻗어 내린 산줄기와 대량천 동쪽 충적지가 맞닿는 곳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서 구리를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원(대량천 및 계곡천)과 연료(목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다.
- 특히, 유적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는 문필봉 기슭에 구리 광산이 존재해 이 일대가 구리산지(광맥)임을 파악할 수 있다. 광산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 운영되었으며, 현재는 폐광되어 그 흔적만 겨우 찾아볼 수 있다.
- 2015년, 군산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학술 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표에서 슬래그(銅滓), 노벽편 등이 수습되어 동 생산 유적의 존재를 추정케 하였다.
- 학술 지표조사 결과, 유적의 고고학적 중요성이 매우 높으나 관리되지 않고 있어 훼손의 위험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따라서 2017년 문화재청의 지원에 따라 군산대학교박물관에서 유적의 존재여부 및 대략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 발굴조사(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 시굴조사에서 대규모 퇴적구와 함께 구리 생산과 관련된 노(爐)시설이 확인되어 정밀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조사목적

- 2017년 긴급발굴조사(시굴조사)에서 노(爐), 퇴적구가 확인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유적의 성격, 잔존현황, 운영시기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정밀발굴조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조사방향 설정, 문화재 지정, 유적 정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조사경과

조사연도	조사명	조사기관	주요성과
2015년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학술지표조사	군산대학교 박물관	유적의 존재 및 대략적인 범위 확인
2017년	진안 대량리 제동유적 긴급발굴조사	군산대학교 박물관	노, 폐기장 등 확인

■ 조사면적 : 1,450㎡

■ 조사기간 : 2018년 05월 29일~2018년 07월 22일(실 조사일수 20일)

■ 조사기관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조사단 구성

▷ 단 장 : 박장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역사철학부 교수)

(책임조사원 겸임)

▷ 조 사 원 :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 준 조 사 원 :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희(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 보 조 원 : 이한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유수빈(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보조연구원)

※ ()안은 발굴조사 허가당시의 직명임

II. 진안군의 역사와 문화

1. 천혜의 자연환경과 내륙교통망의 허브

전북의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진안군은 동쪽으로 무주군·장수군, 남쪽으로 장수군·임실군, 서쪽으로 완주군, 북쪽으로 충남 금산군¹⁾과 마주하고 있다.²⁾ 진안군은 또한 『山經表』³⁾의 큰 무대이다.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호남정맥 사이에 위치하여 해발 300m 내외되는 진안고원에 속한다. 그리고 금남호남정맥이 호남의 지붕으로 불리는 진안고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면서 금강과 섬진강유역으로 갈라놓는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地僻天(山)深 萬重蒼壁’이라고 해 온 말 그대로 높은 산 깊은 물이 수많은 골짜기를 이루어 마치 수십 개의 작은 분지들이 집합해 있는 자연지형을 이룬다.⁴⁾

금남호남정맥⁵⁾ 산줄기에 우뚝 솟은 마이산이 금강과 섬진강 분수령을 이룬다. 본래 큰 호수였던 마이산은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의 지각변동 때 형성된 콘크리트 축조물 같은 수성암으로 동쪽의 수마이산과 서쪽의 암마이산으로 구성되어 있다.⁶⁾ 이 산의 이름도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삼국시대에는 西多山, 고려시대에는 湧出山, 조선 태조 때는 束金山으로 불리다가 태종 때 산의 형태가 말의 귀와 비슷하다 하여 마이산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옛 지도 및 문헌에 금강의 발원지로 소개된 마이산을 경계로 북쪽의 금강유역과 남쪽의 섬진강유역으로 나뉜다.

금강유역에는 금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험장한 들판이 형성되어 있다. 마이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진안읍을 관통하는 진안천, 동향면을 관통하면서 서쪽으로 흐르는 대량천, 운장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정자천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금강의 본류에 정자천이 합류하는 정천면 모정리, 장안산 북쪽 기

1) 충남 금산군은 백제의 進乃郡의 행정치소로 경덕왕 16년(757) 진례군으로 고쳐 전주에 예속되었다. 1963년 충남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줄곧 전북 동부지역인 무진장과 동일한 문화권 및 생활권을 형성했던 곳이다.

2)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89, 『鎭安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全羅北道·鎭安郡.

3) 조선 영조 때 실학자·지리학자인 여암 신경준이 편찬한 전통지리서이다. 우리나라 산줄기의 흐름,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정리해 놓았다. 백두대간과 장백정간,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호남정맥 등 우리나라의 산줄기를 15개로 분류하였다.

4) 진안군사편찬위원회, 1992, 『진안군사』, 진안군.

5) 백두대간의 영취산에서 북서쪽으로 뻗은 산줄기로 장안산·수분령·신무산·자고개·팔공산·성수산·마이산·부귀산을 지나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의 분기점인 주화산까지 이어진다. 비록 63.3km의 짧은 거리이지만 금남정맥과 호남정맥을 백두대간에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 큰 의미를 지닌다.

6) 이영엽, 2001, 「백악기 진안분지 마이산 역암층의 고배수지 환경고찰」, 『과학교육논총』 26, 27-38쪽.

습에서 발원하여 동쪽으로 흐르는 주자천을 따라 협장한 들판이 펼쳐져 있다. 금강의 본류에 정자천과 주자천이 합쳐지는 정천면 모정리와 용담면 월계리에 가장 넓은 들판이 펼쳐졌는데, 진안 용담댐 건설로 대부분 수몰되었다.

섬진강유역은 들판과 구릉지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금남호남정맥 팔공산 북서쪽 데미샘⁷⁾에서 발원하는 섬진강 본류와 마이산 남쪽 기슭에서 발원해 흘러온 지류가 처음 만나는 마령면 일대에 진안군에서 가장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백운면 일대는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북서쪽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관통하는 곳으로 협장한 들판과 그 주변에 구릉지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 섬진강유역은 지류를 따라 들판과 그 주변지역에 구릉지대가 넓게 펼쳐져 금강유역보다 유리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번에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진안군 성수면 도토리유적도 섬진강유역에 속한다.

진안고원은 선사시대부터 줄곧 내륙교통망의 허브역할을 담당하였다. 백두대간 동쪽의 황강유역, 금남정맥 서쪽의 만경강·동진강유역, 금남호남정맥 남쪽의 섬진강유역, 북쪽의 남한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진안고원을 경유하였다.⁸⁾ 금남호남정맥의 신무산 뜯봉샘에서 발원한 금강은 줄곧 북쪽으로 흐르면서 진안고원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한다. 금강·섬진강의 본류와 지류를 따라 내륙 교통망이 그물처럼 잘 갖춰져 예로부터 문물교류의 길목으로 큰 몫을 담당해 왔다. 진안고원을 통과하는 내륙교통로를 추정 복원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진안고원의 금산분지에서 남한강유역 등 중부지방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과 대전시 중구 경계인 새고개를 넘어 대전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이다. 백제의 한성기 때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들이 백제와 교류할 때 주로 이용했던 간선교통로로 금강과 섬진강유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 준다. 진안고원의 금산분지에서 추풍천을 따라 충북 옥천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도 있다. 충남 금산군 추부면과 충북 옥천읍 사이의 비교적 짧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옥천 관산성과 성치산 산성 등 삼국시대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둘째, 공주 또는 부여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금남정맥의 어떤 고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금남정맥의 작은싸리재를 넘는 방법으로 진안 와정토성에서 주자천을 따라 운일암 반일암 계곡을 지나 작은싸리재에 도달한다. 이곳에서 금남정맥을 넘어 장만천과 장선천을 따라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까지

7) 진안군 백운면 신암리 원심암마을 위쪽 천상데미의 상추막이골에 자리한다. 천상데미의 ‘천상(天上)’은 하늘을 오른다는 뜻이며, ‘데미’는 ‘더미’의 전라도 방언으로, 그 뜻은 물건이 한데 쌓인 큰 덩어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천상데미’는 ‘하늘을 오르는 봉우리’를 의미한다.

8) 백제 혹은 신라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진안고원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다양한 세력집단들이 서로 교류하는 데 가고 및 교량역할을 담당해 문화상으로 漸移地帶를 이루었다.

다다르면, 공주 또는 부여 일대로 나아갈 수 있다. 백제의 사비기 때 백제의 수도에서 진안고원 등 금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할 때 주로 이용했던 간선통로⁹⁾이다. 다른 하나는 금산분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금남정맥의 대둔산 북쪽 기슭 말단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지형상 매우 완만하여 벌곡천을 따라 금산분지에서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지까지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셋째, 백두대간을 넘어 황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이 교통로는 백두대간의 어떤 고갯길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백두대간의 최대 관문인 육십령을 넘어 남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방법으로 경남 함양군 안의면 소재지에서 다시 두 갈래로 갈라진다. 다른 하나는 백두대간의 월성치·동엽령을 넘어 황강유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월성치는 금강 상류지역에서 백두대간을 가장 손쉽게 넘을 수 있는 고개이며, 동엽령은 안성분지에서 곧장 황강유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덕산령을 넘어 경북 김천시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전북 무주군 용포리에서 금강 본류를 건너 남대천을 따라 전북 무주군 무풍면 소재지에 도달하고 백두대간을 넘어 김천, 성주를 거쳐 경주 일대로 진출할 수 있다.

넷째,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는 방법이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섬진강유역으로 나아가는 교통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서 금남호남정맥의 수분령·자고개[尺峙]¹⁰⁾·신광치를 넘어 섬진강유역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에 기반을 둔 대가야 등 가야세력들이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를 경유하여 섬진강·영산강·동진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이 교통로를 대부분 이용하였다. 다른 하나는 금남호남정맥의 마이산 동쪽 밀복치를 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중부지방에서 금산분지와 진안고원을 종단하여 서부경남지역을 비롯한 고흥반도, 하동 등 남해안까지 진출하는데 최단거리를 이루는 간선통로이다.

마지막으로 만경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경로이다. 금남정맥의 관문인 보룡고개와 싸리재를 넘는 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전자는 보룡고개를 넘어 진안고원에서 전주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을 넘어 온 간선통로가 장계분지와 진안고원을 동서로 가로질러 전주 일대로 진출할 때 최단거리를 이룬다. 후자는 싸리재를 넘어 만경강 지류인 고산천 일대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싸리재는 진안고원에서 공주 또는 부여 일대로 진출할 때 대부분 넘었던 작은싸리재에서 서남쪽으로 8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그 서북쪽에 왕사봉이 있다. 그리고 만경강유역에서 진안고원 속 금산분지로 곧장 나아갈 때 대부분 금남정맥의

9) 예컨대 공주 또는 부여 일대에서 장선천을 따라 전북 완주군 운주면 소재지에 이르면, 이곳에서 피목리 계곡을 오르다가 작은 싸리재를 넘어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에 도달한다. 그리고 雲日岩 半日岩 溪谷을 지나 줄곧 동남쪽으로 흐르는 주자천을 따라 진안고원에서 교통의 중심지인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방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

10)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서 전북 임실군과 순창군 등 섬진강 중류지역을 횡단하여 영산강유역으로 진출할 때 대부분 넘어야 했던 고갯길로 그 북쪽에는 장수 합미산성과 장수 원수봉 봉수가 있다.

짜리재를 넘었다.

앞에서 복원된 여러 갈래의 내륙교통로가 교차하는 곳에 진안 도토리 유적이 있다. 진안고원에서 사통팔달했던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생산유적에서 필요로 하는 최적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진안 도토리에서 호남정맥의 마치를 넘으면 전주방면으로, 금남호남정맥의 밀북치를 넘어 금강유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금남호남정맥의 서구이재·신광치를 넘어 장수분지와 장계분지 방면으로도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도자기의 원료인 고령토가 풍부하여 도요지가 들어설 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2. 선사시대 때 선진지역으로 발돋움

언제부터 진안군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였는가를 추정하기는 무척 어렵다. 다행히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¹¹⁾인 금강 본류와 정자천, 진안천 유역에서 격지·몸돌·굵개 등 구석기시대의 유물이 다량으로 수습되어, 그 상한이 후기구석기시대까지 올라갈 개연성을 암시해 주었다. 진안 진그늘 유적¹²⁾은 전북에서 최초로 정식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진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20여 개소의 석기제작소와 화덕자리, 그리고 여러 가지 석기와 함께 몸돌과 격지·돌날·좁돌날·부스러기·조각돌 등 구석기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스펀지찌르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곳은 특정 철마다 찾아와서 주로 사냥용 연장을 만들고 잡은 짐승을 처리하던 사냥캠프로 추정되었다.¹³⁾

신석기시대는 1만 년 전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채집경제에서 생산경제로 탈바꿈하면서 정착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유적이 등장하고 토기의 발명, 마제석기의 출현 등으로 상징된다. 이 시기의 유적도 여러 곳에서 조사되었다. 진안군 안천면 삼락리 승금¹⁴⁾·안자동,¹⁵⁾ 상전면 용평리 운암,¹⁶⁾ 정천면 갈용리 갈머리¹⁷⁾·농산,¹⁸⁾ 모정리 진그늘¹⁹⁾·여의곡²⁰⁾

11) 全北大學校 博物館, 1993, 『진안용담댐수몰예정지문화재정밀지표조사보고서』, 鎭安郡, 7-76쪽.

12) 이기길·윤정국, 2005, 『진안 진그늘 선사유적』, 조선대학교 박물관·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13) 이기길, 2001, 「호남 내륙지역의 구석기문화」,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27-50쪽.

14)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勝金 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15)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顔子洞 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16)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雲岩 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17) 李永德, 2001, 「鎭安 갈머리(葛頭)遺蹟 發掘調査 概報」, 『韓國 新石器時代의 環境과 生業』 34, 東國大學校埋藏文化財研究所, 34-38쪽.

18)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X 農山遺蹟』, 全北大學校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19) 김은정·김선주, 2001, 「진안 진그늘 신석기유적」, 『호남지역의 구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99-111쪽.

20)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III 如意谷遺蹟」, 全北大學校

등이 가장 대표적이다. 그리고 섬진강 유역에 속한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류가 수습되었다.

이 유적들은 대체로 하천변의 들판과 구릉지에 입지를 두고 있는데,²¹⁾ 그것은 농경에 유리한 자연환경과 다양한 생계양식을 통한 안정된 정착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과 관련이 있는 것²²⁾으로 보고 있다. 빗살무늬토기편이 절대량을 차지하는 유물은 정주형의 집자리보다 화덕자리 혹은 집석 유구에서 주로 출토되었는데, 유구의 속성은 금강과 섬진강, 영남지방 서부 내륙지역 출토품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었다.²³⁾ 진안군과 그 주변지역에서 신석기시대의 유적은 대체로 금강과 섬진강 양쪽에 넓게 펼쳐진 들판에 입지를 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기의 유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에서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청동기시대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중국 동북지방을 비롯하여 북방문화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농경생활의 시작, 마제석기의 본격적 사용, 사회복합도의 증가가 한층 강해진다. 그리고 토기의 표면에 아무런 장식이 없는 무문토기가 주종을 이루어 그 시기를 달리 ‘무문토기시대’라고도 불린다. 매장풍습도 그 이전 시기와 확연히 다른 매장방법과 시기상 선후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묘제가 새롭게 등장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청동기시대의 매장풍습으로는 지석묘와 석관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옹관묘와 토광묘가 새롭게 등장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매장풍습인 지석묘는 함경북도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서 호남지방에서 한층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다. 지석묘는 하나만 있는 경우도 간혹 확인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수기 내지 수십 기씩 무리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지석묘의 상석은 정연하게 일렬로 배치되어 있으면서 주변의 하천 혹은 산줄기의 방향과 평행하게 장축방향을 두고 있는 점에서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다. 지상에 드러난 상석의 외형을 기준으로 지석묘는 크게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뉜다.²⁴⁾

우선 북방식 지석묘는 지상에다 4매의 판자모양 돌로 시신을 안치하는 석관모양의 매장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거대한 판자모양의 상석을 올려놓은 것을 말한다. 지석묘의 외형이 마치 탁자와 흡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 달리 ‘탁자식 지석묘’라고도 부른다. 전북지역에서는 고창 도산리²⁵⁾와 장수 삼봉리²⁶⁾에 한 기씩의 전형적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21) 李相均, 1998, 「湖南地域 新石器文化의 樣相과 對外交流」,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60-62쪽.

22) 宋銀淑, 1998, 「湖南 內陸地域 新石器文化에 대한 考察」, 『호남지역의 신석기문화』, 湖南考古學會, 17-38쪽.

23) 安承模·李永德, 2004, 「龍潭댐 水沒地區의 新石器文化 -鎭安 갈머리遺蹟을 中心으로-」, 『湖南考古學報』 13, 湖南考古學會.

24) 이영문, 2001, 『고인돌 이야기』, 다지리.

25) 圓光大學校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5, 「高敞郡 文化遺蹟 分布地圖」, 高敞郡.

26) 全榮來, 1979, 「長水, 三峰里 北方式 支石墓」, 『全北遺蹟調查報告』 第10輯, 全州市立博物館, 37-39쪽.

인 북방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특히 진안군과 인접된 장수 삼봉리는 장계천을 따라 펼쳐진 들판에 많은 기수의 지석묘가 자리하고 있었는데,²⁷⁾ 70년대부터 시작된 농지정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대부분 유실되고 현재 1기의 북방식 지석묘만 보존되어 있다.

다음으로 남방식 지석묘는 지하에 시신과 유물을 안치하는 석관이나 석곽 등의 매장시설을 만들고 그 위에 큰 상석을 올려놓아 축조된 형식을 말한다. 그리고 상석을 어떻게 올려놓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이를테면 상석이 몇 개의 작은 받침돌로 고여 있는 것은 ‘기반식 지석묘’라 부르고, 특별한 시설이 없이 상석이 직접 땅위에 얹혀 있는 것은 ‘개석식 지석묘’라고 부른다. 이러한 두 가지 형식의 지석묘가 우리나라의 북쪽보다는 주로 남쪽 지방에 많이 분포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남방식 지석묘’라고 부른다.

진안군의 모든 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지석묘는 금강 상류지역인 정자천·안자천·주자천을 따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²⁸⁾ 특히 정천면 모정리와 안천면 삼락리 일대에 가장 밀집되어 있다.²⁹⁾ 섬진강 유역에서는, 역시 하천을 따라 들판이 넓게 펼쳐져 있으면서 교통의 중심지인 마령면 일대에 본래 30여 기의 지석묘가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³⁰⁾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지석묘는 농경지의 개간과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대부분 없어져 아쉬움을 더해 준다. 아직까지 진안군에서는 북방식 지석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남방식 지석묘는 기반식과 개석식이 반절씩 섞여 있다. 이 지석묘들의 외형적인 속성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상석의 형태나 크기에서 이곳의 강한 지역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금강과 섬진강을 따라 넓게 펼쳐진 들판·구릉지·고갯마루·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그 입지에서도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쉽게도 진안 용담댐 이외의 지석묘를 대상으로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그 축조 시기나 성격이 어떤지 상세하게 알 수 없다.

종래에 지석묘에 대한 발굴조사는 용담댐 수몰지구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컨대 안천면 삼락리 구곡·안자동·수좌동³¹⁾·승금³²⁾·풍암,³³⁾ 정천면 모정리 모곡³⁴⁾·여의곡³⁵⁾·망덕³⁶⁾ 등 여러 곳에서 200여 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27)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長水郡의 文化遺蹟』, 長水郡·全羅北道.

28)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 1989, 앞의 책, 24-26쪽.

29) 全州大學校 博物館, 2007, 『鎭安郡 文化遺蹟 分布地圖』, 鎭安郡.

30) 文化財管理局, 1975, 『文化遺蹟總覽』.

31) 申大坤·金圭東, 2001,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國立全州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32)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논문.

33)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논문.

34)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慕谷 遺蹟』,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II』, 全北大學校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35)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II 如意谷遺蹟』, 全北大學校

섬진강 유역에 속한 마령면 평지리에서도 1기의 지석묘³⁷⁾가 조사되었다. 특히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과 모실 유적에서는 지석묘와 석관묘가 함께 조사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이 지석묘들은 외곽에 타원형·장방형·방형의 묘역을 구획한 다음, 그 중앙에는 지하식 혹은 지상식의 매장주체부를 갖추어 놓았다. 종래에 이것과 유사한 형태의 지석묘가 백두대간 산줄기 동쪽인 거창군과 합천군 등 황강 유역에서 조사되었다.

이밖에도 안천면 삼락리 수좌동, 정천면 갈용리 농산³⁸⁾과 모정리 여의곡 유적에서 청동기시대의 생활유적이 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집자리가 처음으로 조사된 수좌동에서는 유구가 심하게 훼손되어, 그 성격이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았다. 그리고 농산에서는 평면형태가 원형 혹은 장방형을 띠는 집자리와 수혈 유구, 여의곡에서도 송국리형 집자리와 함께 밭 유적이 조사되었다. 그리고 백운면 동촌리에서는 송국리형토기가 수습된 장방형 집자리가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집자리는 지석묘처럼 유구의 속성이 황강 혹은 남강 유역에서 조사된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주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무엇보다 정천면 여의곡에서 조사된 밭은 당시 생산경제 체제를 밝히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 고조선과 중국 연의 무력충돌로 고조선 유이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격변의 시기를 맞는다. 고조선 유이민의 남하로 인해 지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새로운 질서의 재편 과정은 마한 등 삼한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이 무렵 우리나라에서는 철기가 새롭게 출현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청동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우수한 청동제품이 급증하게 된다.

전북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일대에 구리를 생산하던 제련유적이 있다. 고려시대 동향소가 설치된 구리고을로 대량리 창말마을 서남쪽 구릉지에 슬래그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분포 범위가 200m 내외이다. 오래 전 계단식 농경지로 개간된 뒤 다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이 이루어져 제련유적의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다. 이곳에서 동남쪽으로 400m 가량 떨어진 문필봉 북쪽 기슭 중단부에 구리광산이 폐광된 상태로 남아있다. 그리고 전북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안누룩골마을 서남쪽 산기슭에 구리광산과 동향면 자산리 범바위마을 부근에 제철유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조사 때 유적 및 유구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1989년 장수군 천천면 남양리 농공단지 부근 밭에서 무 저장 구덩이를 파다가 우연히 청동유물과 철기유물이 쏟아졌다.³⁹⁾ 진안군 동향면과 장수군 천천면 경계인

博物館・鎭安郡・韓國水資源公社.

3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2,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X 망덕유적』,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37) 群山大學校 博物館, 1998, 『鎭安 平地里 古墳群』, 財團法人 百濟文化開發研究院.

38)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앞의 책.

39) 池健吉, 1990, 「長水 南陽里 出土 青銅器・鐵器 一括遺物」, 『考古學誌』第2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열원리재를 넘으면 진안 대량리 제련유적에서 장수 남양리까지 아주 손쉽게 도달할 수 있다. 천천면 남양리 이방마을 김승남씨가 무 농사가 잘돼 먹을 것만 집으로 옮기고 그 나머지를 저장하기 위한 무구덩이를 파던 중 유물을 발견하였다. 당시 김승남씨가 발견된 유물을 발견매장문화재로 신고함으로써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김승남씨는 장수 남양리 유적을 세상에 알린 주인공이다.

장수 남양리 유적은 신무산 뜯봉샘에서 발원하여 줄곧 북쪽으로 흐르는 장수천을 따라 남북으로 펼쳐진 들판 중앙에 자리한다. 1997년 겨울 장수고등학교 이병운 선생님이 경지정리사업 현장에서 빗살무늬토기편과 석제 방추차를 발견하고 이를 신고함으로써 발굴조사가 추진되었다. 우리들에게 매장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일깨워 줬다. 1998년 전북대 박물관 주관으로 이루어진 발굴조사에서 초기철기시대 積石木棺墓가 추가로 조사되어 큰 성과를 거두었다.⁴⁰⁾

장수 남양리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5기의 고분은 들판의 강자갈과 모래를 장방형으로 파낸 뒤 그 안에 크기가 일정하지 않은 천석을 가지고 조잡하게 벽석을 쌓았다. 무덤의 내부에는 목관 또는 목곽을 안치하고 나무로 천정을 덮고 그 위에 강자갈을 올려놓았다. 유물은 粘土帶土器와 黑陶長頸壺를 비롯하여 銅鏡·細形銅劍·劍把頭飾·銅矛·銅鑿 등의 청동유물과 鐵斧·鐵鑿·鐵鉞 등 철기류, 석기류, 토기류, 관옥 등이 나왔다.

유물의 조합상을 근거로, 그 시기는 청동기가 쇠퇴하고 철기류의 비중이 커지는 기원전 2세기 말에서 기원전 1세기 전반으로 보았다.⁴¹⁾ 아마도 구리 또는 철 생산으로 초기철기문화가 가장 융성했던 시기이다. 유구 및 유물의 속성은 전북혁신도시 내 신평유적을 중심으로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⁴²⁾ 당시에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교역망이나 생산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⁴³⁾

올해 진안군 동향면과 인접된 장수군에서 30여 개소의 제철유적이 발견되었다. 장수군 번암면에서 무주군 안성면까지 철광석을 녹여 철을 생산하던 제철유적이 광범위하게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분포 범위가 40km에 달한다. 몇 년 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운봉고원에서 그 존재를 드러낸 운봉고원 제철유적의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지금까지 호남지방에서 학계에 보고된 제철유적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을 중심으로 대부분 골짜기가 깊고 수량이 풍부한 계곡

40) 尹德香, 2000, 『南陽里』發掘調査報告書, 全羅北道 長水郡·全北大學校博物館.

41) 柳 哲, 1995, 「全北地方 墓制에 대한 小考」, 『湖南考古學報』 3, 湖南考古學會.

42) 한수영, 2015, 「한반도 서남부지역 초기철기문화의 전개양상」, 『전북사학』 46, 전북사학회.

43) 韓修英, 2015, 「全北地域 初期鐵器時代 墳墓 研究」, 全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에서 제철유적이 발견됐다. 백두대간의 지지계곡과 토옥동계곡, 금남호남정맥의 덕산계곡과 방화동계곡, 무돌리골이 가장 대표적이다. 백두대간 남덕유산 서쪽 골짜기에서 발견된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대적골 제철유적은 슬래그의 분포 범위가 1km에 달한다. 특히 철광석의 채광부터 숯을 가지고 철광석을 환원시켜 철을 추출해내는 제철공정을 한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막 문을 연 철의 유적공원을 연상시킬 정도로 제철유적의 보존상태가 거의 완벽에 가까워 대자연의 원시림을 방불케 한다.

청동(靑銅, 영어:bronze)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을 말한다. 인류가 처음으로 발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금속으로 주조하기가 쉬어서 청동기시대부터 오늘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인류의 역사 발전에 청동 및 철의 공헌도가 가장 높다. 언제부터 진안군 동향면 제련유적과 장수군의 제철유적이 개발됐는지, 아직은 기록이 없고 한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기를 속단할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 때 구리 및 철산개발은 어느 집단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경제적인 원동력의 하나로 해석되고 있다.

기원전 202년 제나라 전횡의 망명과 기원전 194년 고조선 준왕의 남천으로 초기 철기시대 때 전북혁신도시가 테크노밸리로 급부상한다. 당시 만경강유역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선진문물을 가진 선진세력에 의해 진안 대량리 제련유적과 장수군 제철유적이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진안 대량리 제련유적에서 조선시대까지 구리 생산이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안고원 속 토착세력집단의 발전과정과 그 역사성이 가장 진솔하게 담긴 진안 대량리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계기로 향후 제련유적의 보존대책 및 활용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3. 삼국시대 때 거점지역으로 성장

원삼국시대란 1970년대 고고학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시대 구분법으로 서력기원 개시 전후부터 300년경까지의 약 3세기 동안의 시기⁴⁴⁾를 말한다. 그 이전에는, 이 시기를 삼한시대·부족국가시대·성읍국가시대·김해기·철기시대 후기·삼국시대 전기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었다. 고고학계에서는 삼국이 고대국가 체제를 완성하는 300년까지의 시기를 삼국시대의 과도기적인 단계로 설정하고, 이 시기를 ‘원삼국시대’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중국 췌나라 때 陳壽가 편찬한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모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열거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기 서해안·충남·전북·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 소국들은 대체로 현재 군

44) 金元龍, 1986,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128-130쪽.

단위마다 하나씩 자리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쳐진다. 이처럼 동이전에 열거된 소국 중 진안군에도 소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아직은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시기의 유물이 백운면 운교리 일대에서 수습되었다.⁴⁵⁾ 오래 전 밭으로 개간된 구룡지의 남쪽 기슭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상당량 수습되었는데, 이 유물은 집자리 등 생활유적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대는 선사시대 이래로 줄곧 금강과 섬진강 유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주는 내륙 교통로가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리고 정천면 강화리 이포마을에서 수습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을 제외하면, 아직도 이 시기의 유적이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유물도 수습되지 않아 그 성격을 살필 수 없다.

그런데 마한 이래로 백제문화권에 속했던 곳으로 인식된 금강 상류지역에 가야문화 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장수가야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안군 등 금강 상류지역에 가야문화 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장수가야가 존재했다는 고고학적 단서를 처음 제공해 준 곳이 장수군 천천면 삼고리 고분군⁴⁶⁾이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수혈식 석곽묘는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기 이전까지 금강의 상류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토착세력집단의 대표적인 고분으로 밝혀졌다. 동시에 유구나 유물의 속성이 백두대간 동쪽의 가야고분과 상통하는 것으로 밝혀져 그 조영집단이 가야문화 화를 기반으로 발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 상류지역에서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는 고령 지산동에서 가야계 고총이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면서 대가야의 영향력이 그 주변지역으로 파급되는 5세기 중엽 이후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⁴⁷⁾ 그런데 장수 삼고리에서 밝혀진 바로는, 그 상한이 5세기 중엽보다 얼마간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장수 삼고리 남쪽 기슭 하단 부에 입지를 둔 석곽묘에서는, 토기류의 조합상이 단순하면서 대가야양식이 섞여있지 않고 오직 이곳의 재지계만 출토되었다.⁴⁸⁾ 고령 지산동을 비롯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그 시기가 대체로 5세기 이전으로 비정되고 있기 때문에 금강 상류지역에서는 대가야의 영향력이 미치기 이전부터 수혈식 석곽묘가 만들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아직은 수혈식 석곽묘의 상한을 살필 수 있는 고고학 자료가 충분치 않다. 다만 장수 침곡리에서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품과 흡사한 토기류가 출토되어,⁴⁹⁾ 향후 금강 상류지역에서도 목곽묘가 조사될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그리고 토기류

45) 全州大學校 博物館, 2007, 앞의 책.

46) 群山大學校 博物館, 1997, 『長水 三顧里 古墳群』, 群山大學校博物館.

47) 柳 哲, 1996, 앞의 논문. 朴天秀, 1999, 『考古學 資料를 통해 본 大加耶』,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韓國考古學會.

48) 이밖에도 석곽의 바닥면에 역석, 천석, 토기편 등을 깔아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생토면을 바닥면으로 그대로 이용한 고분들과는 유구의 속성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49) 軍山대학교 박물관, 2008, 『장수 침곡리 마무산 유적』, 장수군.

의 조합상은 대체로 5세기 초엽에 대가야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해 재지계와 혼재되다가 5세기 중엽부터 6세기 초엽까지는 대가야양식 토기가 절대량⁵⁰⁾을 차지한다. 반면에 삼족토기·직구호·병형토기 등 백제토기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부터 수혈식 석곽묘에 부장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금강 상류지역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까지도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지 않고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높다.⁵¹⁾

그런 가능성은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분포양상과 발전과정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금강의 최상류인 장수군 일대에는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⁵²⁾ 가야계 고총의 분포양상을 정리하면, 장계분지에는 전북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에서 41기·월강리에서 23기·장계리에서 20여 기, 계남면 호덕리에서 40여 기와 화양리에서 1기의 가야계 고총이 있다. 그리고 장수분지에는 마봉산에서 서북쪽으로 뻗은 산줄기 정상부에 90여 기와 팔공산 서남쪽 대성고원에도 5기 이외의 고총이 있다.⁵³⁾

가야계 고총의 기수와 봉토의 규모 등 외형적인 속성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금강 상류지역에서 장계분지는 가야계 최대의 중심집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 상류지역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은 산줄기의 정상부에만 자리하여 영남지방에서 조사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특히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의 가야계 고총은 백화산과 마봉산에서 북쪽으로 뻗은 산줄기의 정상부에만 입지를 두었다.

장수 삼봉리에서 가야계 중대형 고총에 대한 발굴조사⁵⁴⁾가 이루어졌다.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북쪽에 인접된 고총과는 일정한 간격을 두었으며, 봉토의 가장자리에서는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봉토의 중앙에는 주석곽이 자리하고 동남쪽과 서남쪽에 한 기씩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으로, 이 순장곽들 사이에 장란형토기를 잇대어 놓았다. 그리고 장수 동촌리에서도 고총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유구의 속성은 대체로 삼봉리와 흡사했다. 즉, 산줄기의 정상부를 인위적으로 구획한 다음, 봉토의 중앙에 자리한 주석곽을 에워싸듯 1~3기씩의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다. 그리고 봉토의 평면형태가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그 가장자리에는 호석을 두른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봉토의 평면형태와 호석시설을 두르지 않은 유구의 속성에서 금강 상류지역의 강한 지역성⁵⁵⁾

50) 백제가 수도를 공주로 옮긴 이후, 대가야는 백제와의 교역 및 교류를 위해 금강 상류지역인 장계분지와 장수분지를 통과하는 경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개연성이 높다.

51) 전상학, 2007, 「全北 東部地域 竪穴式 石槨墓의 構造 研究」, 『湖南考古學報』 25, 湖南考古學會.

52)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3, 『長水郡의 古墳文化』, 長水文化院.

53)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4, 『전북동부지역 가야문화유산』, 전라북도.

54)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55) 봉토의 가장자리에 호석을 두르지 않은 유구의 속성은 남원 월산리·두락리와 상통하지만, 봉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으로 주석곽의 주변에 순장곽이 배치된 다곽식이라는 점에서는 서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백두대간이나 금남호남정맥과 같은 험준한 산줄기로 가로막혀 지형상으로도 각각 독립된 지역권

이 입증되었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지만 금제이식과 토기류, 철기류, 방추차 등으로 그 기종이 매우 다양하다. 토기류는 대가야양식이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기에 금강 상류지역의 재지계로 분류된 광구장경호와 흡사한 기종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삼봉리 주석곽에서 위세품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목관에 사용됐던 꺾쇠⁵⁶⁾가 출토되어, 이 고총들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추정된다.

장수 삼봉리 1호분 주석곽에서 위신재인 환두대도가 부장된 흔적과 함께 목관에 사용됐던 꺾쇠가 출토되어,⁵⁷⁾ 가야계 고총의 피장자가 장수가야의 수장층으로 밝혀졌다. 2012년 장수 삼봉리 가야계 고총에 대한 학술발굴에서도 그 평면형태가 장타원형으로 다시 입증됨으로써 장수가야만의 독자성과 지역성이 재확인되었다.⁵⁸⁾ 무엇보다 금으로 만든 가는 고리를 비롯하여 재갈과 등자, 꺾쇠 등 값진 유물이 출토되어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5년 장수 동촌리 가야계 고총에서 말발굽과 말뼈가 함께 나왔다.⁵⁹⁾ 주석곽은 구지표와 생토면을 정지한 위 1m 높이로 성토한 다음 다시 파내었는데, 그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으로 길이 420cm, 너비 70cm, 높이 115cm이다. 유물은 주석곽의 서쪽에서 단경호·고배형 기대·발·뚜껑 등의 토기류와 동쪽에서 말뼈와 함께 말발굽[蹄鐵]이 출토되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극심한 도굴로 유물의 출토량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금강 상류지역에 기반을 둔 장수가야는 지정학적인 이점과 교통의 중심지, 철산개발⁶⁰⁾ 등의 원동력을 발판으로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을 조영하였지만, 백제가 백두대간의 큰 고갯길인 육십령을 넘는 동서방향 교통로를 따라 가야지역으로 진출하는 과정에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⁶¹⁾ 가야계 중대형 고총과 그 하위계층의 분묘유적에서 백제토기의 본격적인 등장⁶²⁾을 근거로, 그 시기는 잠정적으로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로 짐쳐진다.

을 형성한다.

56) 장수가야의 수장층 혹은 지배자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밝혀진 상당량의 꺾쇠가 장수 삼봉리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주석곽에서만 출토되었다.

57) 군산대학교 박물관, 2005, 『장수 삼봉리·동촌리 고분군』, 장수군·문화재청.

58) 전상학, 2013, 「진안고원 가야의 지역성」, 『湖南考古學報』 43, 湖南考古學會, 35-66쪽.

59)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5, 『장수 삼봉리 고분군』, 장수군.

60)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무령고개·명덕리 육십령, 계북면 양악리 토옥동 계곡, 계남면 신전리,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학선동 계곡에 야철지와 관련된 구전이 전해지고 곳곳에 슬래그편이 쌓여 있다.

61) 가야계 중대형 고총의 내부구조가 수혈식 일색으로만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횡혈식이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높여 준다.

62) 아직은 고고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장수 삼고리에서는 삼족토기·병형토기·양이부호, 장수읍 동촌리에서는 직구호·단경호 등 백제토기가 6세기 초엽을 전후한 시기에 본격적으로 부장된 것이 아닌가 싶다.

4. 장수가야의 서북쪽 진출과 그 의미

주지하다시피 백제는 수도를 공주로 옮긴 이후 한동안 귀족의 천권·왕의 피살·귀족의 반란,⁶³⁾ 그리고 한성의 상실·권신의 발호·왕권의 실추⁶⁴⁾ 등으로 인해 일련의 정치적 혼미 내지 정정불안에 빠진다. 이처럼 백제가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갑자기 상실하게 되자 장수군 일대에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층을 조영한 장수가야가 진안고원 속 진안군과 금산분지⁶⁵⁾ 일대로 진출했을 가능성이 높다.

진안 와정토성⁶⁶⁾은 가야세력과 백제를 연결해 주는 그물망처럼 잘 갖춰진 여러 갈래의 내륙 교통로가 하나로 합쳐지는 교통의 중심지에 자리한다. 진안 용담댐에서 위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전북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와정마을 서남쪽에 진안 와정토성이 있다. 금강과 바로 인접된 반월형 산 정상부에 토성이 입지를 두었는데, 이곳에 토성이 자리한다는 사실은 1994년 밝혀졌다.

당시 면담조사 때 “이 산에 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아직까지 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와정마을 주민들이 제보해 주었다. 당시 주민들의 제보와 몇 점의 토기편, 그리고 ‘臥停’이라는 지명을 근거로 두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산의 외곽에는 판축법으로 성벽을 쌓아올리고 목책을 한 바퀴 두른 백제토성과 그 내부에서 대형 저장공과 수혈식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이 토성의 정상부에서 조사된 저장공은 풍화암반층을 파내어 마련되었는데, 그 규모는 입구직경 225cm, 바닥직경 185cm, 깊이 272cm이다.

진안 와정토성의 서쪽 구역에서 풍화암반층을 일정한 깊이로 파낸 다음, 그 안에 생활공간이 마련된 7기의 백제계 수혈식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주거지의 북벽 혹은 서북벽에는 겨울철에 추위를 피하기 위한 구들시설을 갖춰 놓았다. 구들시설은 —자형·L자형·다굴형 등 모든 유형이 망라되어, 백제계 수혈식 주거지가 오랜 기간에 걸쳐 조성되었음을 암시해 주었다. 그리고 백제의 중앙세력과 관련된 광구직구호·삼죽토기·시루 등 백제토기가 토기류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경부에 밀집과상문이 시문된 소량의 가야토기도 포함되어 있다. 토기류의 조합상에 의하면, 진안 와정토성을 경유하는 내륙 교통로를 이용하여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이 당시 백제와의 교류관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암시해 주었다.

63) 盧重國, 1993,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64) 梁起錫, 1996, 『百濟 熊津時代와 武寧王』, 『百濟武寧王陵』, 忠清南道·公州大學校 百濟文化研究所.

65) 백제 진내군의 행정치소로 삼국시대부터 1963년 충남으로 편입되기 이전까지 줄곧 행정 구역상으로 전북에 속했던 곳이다.

66) 群山大學校 博物館·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鎮安 龍潭潭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 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진안 와정토성은 백제에 의해 축성⁶⁷⁾된 이후 줄곧 관리 운영되다가 백제의 한성 상실로 갑자기 정치적인 혼란에 빠지면서 대내외적인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자, 이 기회를 틈타 대가야를 비롯한 장수가야의 진출로 급기야 폐성된 것으로 짐쳐진다. 이렇듯 선사시대 이래로 교통의 핵심 중심지를 차지할 목적으로 장수군 일대에서 가야계통 국가단계의 정치체로 발전한 장수가야가 백제의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 본래 백제가 장악하고 있었던 이곳으로 진출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진안 황산리에서 밝혀진 고고학 자료가 그 가능성을 뒷받침 해 준다.

장수가야의 진출로 폐성⁶⁸⁾된 진안 와정토성에서 서쪽으로 350m 가량 떨어진 곳에 진안 황산리 고분군⁶⁹⁾이 있다. 금강의 본류와 주자천이 합쳐지는 지점에서 서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곳으로, 행정 구역상으로는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에 속한다. 여기서 조사된 17기의 수혈식 석곽묘는 지구별로 토기류의 조합상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나’ 지구의 가장 서쪽에 위치한 17호에서 대가야양식 등 가야토기가 일색을 이루다가 점차 동쪽으로 가면서 백제토기가 새롭게 등장하여 ‘가’ 지구에서는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반절씩 섞인다.⁷⁰⁾

장수가야에 의해 일시 점령된 진안 용담댐과 그 주변지역은 다시 백제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다름 아닌, 진안 황산리 ‘가’ 지구에서 가야토기와 백제토기가 반절씩 섞인 상태로 동일 석곽묘에서 출토된 것이 이를 증명해 준다. 진안 황산리 6호분과 11호분에서 출토된 삼족토기는 배신이 깊고 뚜껑받이가 상당히 높은데, 그 속성은 5세기 말엽으로 비정된 익산 웅포리,⁷¹⁾ 논산 모촌리⁷²⁾ 출토품과 흡사하다.⁷³⁾ 그런데 진안 황산리에서 남쪽으로 2km 가량 떨어진 곳에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성이 있다. 이 산성은 산정식으로 고남치에서 동남쪽으로 금강변까지 뻗⁷⁴⁾처럼 뻗은 산줄기의 끝자락에 있는데, 여기서 삼국시대 토기편과 기와편이 상당량 수습되었다. 더욱이 이곳은 백두대간의 주요 관문인 월성치 혹은 육십령으로 연결되는 동서방향 교통로가 시작되는 분기점으로, 금강 본류의 폭이 200m 이상으로 워낙 넓어

67) 윤덕향, 2000, 「진안 와정 백제성」, 『섬진강 주변의 백제산성』, 한국상고사학회, 107-114쪽.

68) 목적열과 그 주위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화재가 와정토성의 폐기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이 주목된다.

69)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鎭安 黃山里 古墳群」, 『鎭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IV』, 韓國水資源公社.

70) 진안 황산리 ‘나’ 지구 17호의 일단투창유개고배와 저평통형기대는 고려 지산동 44호 출토품과 속성이 흡사해, 그 시기는 5세기 4/4분기의 이른 시기로 비정되었다. 그렇다면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가 진안 용담댐과 금산분지 일대에서 등장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대가야가 왜와의 교역과 교류관계를 장악한 정치적인 변화 못지않게 백제의 대내외적인 정치상황도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71) 崔完奎, 1995, 『益山 熊浦里 百濟古墳群』, 財團法人 百濟文化開發研究院·圓光大學校 博物館.

72) 安承周·李南奭, 1993, 『論山茅村里百濟古墳群發掘調査報告書』, 財團法人 百濟文化開發研究院·公州大學校 博物館.

73) 이밖에도 대호·광구장경호·장경호·단경호·무투창고배·원형투창고배·개배·병형토기 등이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 해 준다.

74) 고남치에서 금강변까지 뻗처럼 뻗어 내린 산줄기의 길이가 5km에 이른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넜다⁷⁵⁾고 한다.

금강 상류지역으로 백제의 진출과정은 문헌을 통해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백제는 일련의 정치적인 불안을 극복하고 실추된 왕권을 회복시켜 왕권의 전제화를 모색한 다음, 동성왕 9년(487)에는 대산성을 공략⁷⁶⁾함으로써 동쪽, 즉 가야지역으로 진출을 본격화한다. 문헌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대산성은 ‘백제가 아닌 임나가 쌓았으며, 백제에서 동쪽으로 통하는 길목과 나무를 이용해서 건너야 할 정도로 큰 하천변에 입지를 두고 있으며, 그 너머에는 백제군이 주둔해 있다’는 내용과 부합되는 곳에 자리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대산성의 위치를 비정하기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띠었지만, 문헌의 내용을 고고지리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곳⁷⁷⁾은 진안군 용담면 월계리 산성⁷⁸⁾이다. 그리고 진안군과 금산분지 일대에 40여 개소의 관방유적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강한 지역성을 보인다. 그렇다면 백제는 장수가야의 서북쪽 진출로 한동안 빼앗긴 교통상 최대의 중심지를 5세기 말엽 늦은 시기에 다시 회복함으로써 가야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결정적인 교두보를 확보한다.

다른 한편으로, 봉수의 분포양상을 통해서도 금강 상류지역 장수가야의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다.⁷⁹⁾ 금강과 섬진강 상류지역에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둔 상태로 밀집 분포된 80여 개소의 봉수⁸⁰⁾는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의 분포권과 거의 일치한다. 더욱이 금강 상류지역 장수가야의 최대 중심지인 장계분지를 방사상으로 에워싸고 있으면서 장수군으로 연결되는 내륙 교통로를 손쉽게 조망할 수 있는 산봉우리에 자리한다.

그런데 고려 말의 봉수선로가 대체로 계승되어, 조선 초기에 정비된 5봉수로의 직봉과 간봉이 통과하지 않는 금강과 섬진강 상류지역에 봉수가 집중적으로 분포된 것은 자못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삼국시대 토기편⁸¹⁾보다 그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수에서 수습되지 않은 것은, 이 봉수들의 조영시기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봉수의 분포양상과 유물의 속성만을 기준으로 추론한다면, 이 봉수들은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강한 지역성을 유지했던 금강 상류지역의 장수가야⁸²⁾

75) 금강을 사이에 두고 월계리 산성 서남쪽에 위치한 진안군 정천면 용화리 ‘伊浦’라는 마을 지명도 이곳에 나무가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76) 『일본서기』 현종기 3년(487)조의 ‘대산성을 쌓아 동도를 봉쇄하고 군량을 나르는 나무를 끊어 (우리)군을 곤궁케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대산을 공략하도록 하였다’는 것과 관련된 기사이다.

77) 姜元鍾, 2001, 『全北 東北部地域 山城의 研究』-鎭安 城南里 山城을 中心으로-, 全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78) 성벽은 성돌의 두께가 아주 얇은 판석형 할석을 가지고 쌓았는데, 성벽의 축성방법은 고려 주산성에서 확인된 가야계 산성의 특징이 확인된다.

79)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2, 『長水郡의 山城과 烽燧』, 長水文化院.

80) 조명일, 2004, 「전북 동부지역 봉수의 분포양상」,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성과』, 호남고고학회.

81) 장수 봉화산과 무주 봉화산 봉수 등 10여 개소의 봉수에서 적갈색, 명회색, 회청색, 회갈색, 회색을 띠는 연질 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 철부 등이 수습되었는데, 유물의 속성은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출토품과 흡사하다.

에 의해 축조되었을 개연성⁸³⁾이 가장 높다.⁸⁴⁾

이제까지의 지표조사에서 삼국시대 토기편보다 그 시기가 늦은 유물이 봉수에서 수습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봉수의 설치시기와 설치주체를 추정하는데 결정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영취산과 봉화산 봉수 학술발굴에서 그 설치시기이 5세기 말엽부터 6세기 초엽까지로 밝혀졌다.⁸⁵⁾ 아마도 백제가 정치적인 불안에 빠졌을 때 백제영역으로 진출한 장수가야가 백제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운영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동시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삼국시대 봉수들로 그 존재만으로도 학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5. 진안군의 도요지와 도자문화 융성

금강 상류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장수가야가 백제에 정치적으로 복속된 이후 진안군의 모습은 『삼국사기』의 기록을 통해 살필 수 있다.⁸⁶⁾ 이에 의하면, 백제 때 용담면에는 물거현, 진안읍에는 난진아현, 마령면에는 마돌현이 설치되었다. 다만 이 지역들이 언제부터 백제의 영토로 편입되었는지 또는 백제의 지방통치 체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다가 의자왕 20년(660) 백제가 신라에 멸망하고, 663년에는 주류성이 함락됨으로써 그 영토가 당과 신라에 양분되는 과정에 진안군은 모두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시대 분묘유적이 진안읍과 마령면, 용담면, 동향면, 백운면 일대에서 확인되었다.⁸⁷⁾ 그런데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도굴로 앙상하게 모습을 드러낸 고분은 대부분 다시 흙속에 파묻히거나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어 고분의 축조시기와 성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산봉우리의 남쪽 기슭에 입지를 둔 고분의 경우에는 민묘구역의 조성과 농경지 개간 등으로 유구가 심하게 유실 내지 파괴되었다.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분묘유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성격이나 조영시기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라는 경덕왕 16년(757) 당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그 영속체제를 강화하는 일련의 개혁을 단행할 때 전국의 모든 지명을 중국식으로 고쳤다. 그 때

82) 장계분지와 장수분지에 밀집 분포된 200여 기의 가야계 중대형 고총이 유구의 속성에서 고령 지산동과 다른 강한 지역성이 확인되었고, 이 봉수들이 백두대간을 넘어 대가야의 도움지인 고령까지 연결되는 봉수로가 아작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83) 그러나 경부에 밀집파상문이 시문된 회청색 경질토기편을 제외하면, 가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고고학 자료는 더 이상 없다. 다만 봉수에서 수습된 삼국시대 토기편이 가야계 수혈식 석곽묘 출토품과 흡사한 속성을 띠고 있으면서 삼국시대 이후의 유물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84) 조명일, 2012, 「금강 상류지역 산성 및 봉수의 분포양상과 성격」, 『湖南考古學報』 41, 湖南考古學會, 67-90쪽.

85)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수군·문화재청, 2014, 「장수 영취산·봉화산 발굴조사 약보고서」 참조.

86) 崔炳云, 1989, 「鎮安郡의 地理와 沿革」, 『鎮安地方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全北大學校 全羅文化研究所·全羅北道·鎮安郡, 46-52쪽.

87) 全州大學校 博物館, 2007, 앞의 책.

물거현은 청거현으로 바뀌어 진례군의 영현이 되었으며, 난지아현은 진안현으로 바뀌어 벽계군의 영현이 되었다. 그리고 마돌현은 마령현으로 바뀌어 임실군의 영현이 되었다. 이때부터 처음으로 진안과 마령이라는 지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신라의 개혁정책이 실패로 끝나고 급기야 해공왕 12년(776)에는 지명이 다시 바뀌는 과정에 물거·난진아·마돌로 환원되었다.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서 6기의 통일신라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다.⁸⁸⁾ 섬진강 상류지역에서 가장 넓은 들판이 펼쳐진 마령분지로 행정 구역상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 속한다. 1997년 백제문화개발연구원으로부터 발굴비를 지원받아 군산대학교 박물관 주관으로 실시된 발굴조사에서 6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이 유적에서 조사된 고분은 벽석의 축조방법, 장축방향, 평면형태 등은 다소간 차이를 보여 주었지만, 유개함을 비롯한 인화문이 압인된 통일신라시대 토기가 출토되어, 그 시기는 7세기 말엽의 이른 시기로 편년되었다.

또한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에서도 통일신라시대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되었다.⁸⁹⁾ 전북에서 처음으로 통일신라시대 지상식 횡혈식 석실분이 조사된 유적으로 부귀면 오룡리에 위치한다. 봉분의 가장자리에 직경 11m의 둘레돌이 둘러졌고, 벽석은 3단까지 수직으로 쌓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약간씩 내경되게 올려놓았다. 이 유적은 통일신라시대 묘제의 성격과 백제의 멸망으로 격변기에 처했던 7세기 말엽 전북 동부 산악지대의 시대상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행정의 치소가 설치되었던 진안읍과 용담면 일대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유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하여 당시 이 지역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추론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통일신라시대 때는 삼국시대 말기에 만들어지기 시작한 횡혈식 석실분을 약간 변형시킨 고분과 불교의 영향으로 시신을 화장하고 나서 남은 것을 뼈단지에 넣어서 묻어 주는 화장묘가 크게 유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진안군에서도 한층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면 머지않아 이 시기의 유적이 조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후삼국 때 전주에 도읍을 둔 후백제와 관련된 유적이 있다. 섬진강유역에 속한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외궁리에 자리한 3개소의 초기청자 요지이다.⁹⁰⁾ 진안고원의 서남쪽에 위치한 내동산에서 서북쪽으로 갈라진 산자락 서북쪽 기슭 말단부에 진안군 성수면 도통리 중평마을이 있다. 이 마을 북쪽 기슭 말단부에 초기청자 요지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오래전 마을이 조성되면서 상당한 깊이로 흙을 파내어 요지가 대부분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본래의 지형이 얼마간 보존된 동쪽과 서쪽 구역에는 초기청자 요지가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3차례의

88) 群山大學校 博物館, 1998, 앞의 책.

89)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 「鎮安 五龍里 古墳群」.

90) 尹盛俊, 2010, 「鎮安地域 靑瓷窯址의 研究」, 圓光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시굴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초기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이 일대에서 완·발·접시·U자형청자, 요도구인 갑발과 갑발 받침, 전축요의 부재인 벽돌이 수습되었다.⁹¹⁾ 초기청자의 굽은 선해무리굽과 중국식해무리굽, 한국식해무리굽, 변형해무리굽이 모두 확인된다. 전면에 시유된 유약은 그 색조가 녹갈색 혹은 황갈색 계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 북방요장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백자는 그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요도구인 갑발은 초기청자 요지에서 발견되는 발형·원통형·복발형이 모두 공존한다. 벽돌이 비교적 넓은 구역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벽돌가마[塼築窯]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5년 국립전주박물관 주관으로 이루어진 중평마을 모정 부근 발굴조사에서 흙가마와 벽돌가마가 함께 발견되었다.

진안 중평마을에서 북쪽으로 350m 떨어진 중성골에도 초기청자 요지가 있다. 진안군 마령면과 성수면 경계로 길이 500m 내외의 구역에서 10여 개소의 요지가 확인되었다. 이들 요지는 몇 년 전 임도를 개설하는 과정에 생긴 절단면에 유구가 노출되어 있는데, 요지의 폭은 200cm 내외이다. 요도구인 갑발 퇴적층에서 초기청자와 조질청자인 녹청자가 함께 수습되었다. 초기청자의 굽은 선해무리굽과 한국식해무리굽이 있으며, 후자는 중평마을 수습품보다 그 기벽의 두께가 얇고 굽의 접지면도 좁아 약간 퇴화된 속성을 보인다. 다만 현지조사 때 외궁리 점촌마을과 도토리 중평마을에서 상당량 수습된 벽돌이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진안 외궁리 초기청자 요지는 진안 도토리 요지에서 서남쪽으로 500m 떨어진 점촌마을에 있다. 1990년대 초기청자와 녹청자 계통의 요지로 알려졌으며, 굽안바닥에 ‘十’가 표시된 한국식 해무리굽완도 채집되었다. 요도구인 갑발편은 그 양이 많지 않지만 비교적 넓게 흩어져 있으며, 기종은 발형과 원통형으로 추정된다. 요도구인 갑발은 북쪽에 인접된 진안 도토리 출토품과 흡사하여 서로 비슷한 시기에 외궁리 초기청자 요지가 운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면담조사 때 주민들이 “처음에 외궁리 점촌마을에서 도자기를 생산하다가 산 넘어 도토리 중평마을로 가서 도자기를 계속해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제보해 주었다.

후백제가 멸망된 뒤 고려 초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다가 현종 9년(1018)에 비로소 항구적인 지방 통치체제를 마련하였다. 지방 통치제도는 전국을 경기와 호경, 그리고 12개의 계수관도로 정연하게 나눈 것이었다. 이 때 전국의 지명을 다시 중국식의 한자명으로 고치면서 진안·마령·청거 등도 공공의 지명으로 널리 쓰이게 되었다. 당시의 편제에서 진안·마령·청거는 전주목도에 속하였다. 그러나 한 군데도 수령관이 파견되지 않아 진안과 마령은 강주소와 함께 전주목, 청거는 동향소와 함께 진례현에 속하여 각각 그 속현이 되었다. 이러한 현종 9년의 지방 통치제도는

91) 金英媛, 1997, 『全北의 朝鮮時代 陶窯地』-朝鮮時代 粉靑·白磁 窯址-, 國立全州博物館.

고려 말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충선왕 5년(1313) 청거가 용담으로 개칭되면서 일약 현령관으로 독립하고 그와 함께 동향이 그 임내로 이속되었다.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에서 대규모 고려시대 고분이 조사되었다.⁹²⁾ 이 유적에서는 수혈식 석곽묘와 횡구식 석곽묘, 석관묘 등 100여 기의 고려고분이 조사되었는데, 유물은 50 여 기의 고려고분에서 상당량의 청자류가 출토되었다.

진안 도통리 초기청자 요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개소의 후기청자 요지가 있다.⁹³⁾ 우선 진안 도통리에서 북서쪽으로 7km 가량 떨어진 곳에 진안 중길리 도요지가 있다. 호남정맥의 만덕산에서 남서쪽으로 뻗은 산자락 말단부로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사기점마을에 속한다. 이 마을 입구 남쪽 기슭 밭에 1호 요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북서쪽으로 50m 가량 떨어진 남동쪽 산기슭에 2호 요지가 있다. 달리 점촌 혹은 점터라고 불리는 곳으로, 본래 장인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는데, 현재 요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없다. 1996년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실시한 지표조사에서 청자편과 분청사기편, 요도구 등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청자류는 상감 선·연당초문과 인화여의두문·국화문·육원문 등이 시문된 대접과 접시들로 그 시기가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초의 퇴락한 청자이다.

다음으로 진안군 백운면 반송리 두원마을에서 남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진안 반송리 도요지가 있다. 최씨 일가 모친 무덤 옆 경작지에 백자편이 수습된 1호 요지가 있으며, 이곳에서 산골짜기로 100m 떨어진 감나무골에 2호 요지가 있다. 2호 요지에서 고려 말 청자편과 조선 초 분청사기편과 백자편이 수습되어,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도자기가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청자류는 대접과 접시, 완으로 굽은 투박한 다리굽이며, 문양은 무문을 비롯하여 상감 선·연당초문, 인화 여의두·국화·육원문 등으로 다양하다. 요도구는 자연석 도지미와 경사진 원형 도지미, 절구형과 대형 도지미 등이 수습되었다. 유물은 14세기에서 15세기 초의 퇴락한 청자부터 17세기의 백자까지 그 시기적인 폭이 넓다.

조선 초기에 이르러 진안군은 상당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 공양왕 3년(1391)에 감무관으로 진안현의 겸관이 되었던 마령현이 태종 12년(1412)에 그 속현이 되고 곧이어 직촌이 되었다. 말하자면 백제 때부터 줄곧 현이 설치되었던 마령현의 치소가 폐지되면서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령현의 임내였던 강주소는 태종 9년(1409)에 진안현의 직촌이 되었고, 또한 용담현의 속향이었던 동향도 용담현의 직촌이 되었다. 그리하여 본래 5개의 치소가 설치되었던 진안군은 조선 초에 용담현과 진안현으로 통합되었다.

진안현은 태종 13년(1413)에 감무가 현감으로 바뀌고 조선 말까지 별다른 변동이

92)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究所, 2001, 『鎮安 龍潭댐 水沒地區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V』, 鎮安郡·韓國水資源公社.

93) 金英媛, 1997, 앞의 책.

없었다. 그러나 용담현은 인조 24년(1646)에 현감관으로 강등되었다가 효종 7년(1656)에 복구되었다. 그리고 진안현과 용담현은, 조선 초기의 계수관제에서는 남원 계수관의 관할이었고, 세조 12년(1466)이후의 진관제에서는 남원 진관에 속하였으며, 왜란과 호란 이후에 별도로 신설된 진영제에서도 전라도 좌영에 속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소개된 백운면 반송리 두원 도요지⁹⁴⁾는 분청사기편과 백자편, 청자편이 함께 수습되었는데, 분청사기편이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진안군 주천면을 비롯하여 부귀면·백운면·성수면·용담면·정천면 등 진안군 일대에는 120여 개소의 도요지가 밀집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다.⁹⁵⁾ 고려 때부터 양질의 청자를 생산하던 도자문화의 전통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진안군 정천면 황금리 봉곡 도요지⁹⁶⁾를 제외하면 한 차례의 발굴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진안군 도자문화의 우수성을 밝히기 위한 학술조사가 요망된다.

진안현과 용담현은 고종 32년(1895) 모두 군이 되어 남원부에 속했다가 그 이듬해에는 13도의 설치로 전라북도에 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1914년에는 마침내 용담군이 폐지되어 진안군으로 통합되면서 백제 때부터 줄곧 현이 설치되었던 용담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 1973년에는 정천면의 구룡리와 용평리가 상전면으로, 상전면의 월평리가 정천면으로, 상전면의 운산리와 부귀면의 정곡리 및 마령면의 연장리가 진안면으로 각각 이속되었다. 그리고 진안면은 1979년 5월 1일에 전국의 군청 소재지를 읍으로 바꾸는 조치에 따라 진안읍으로 승격되었다.

진안고원은 한마디로 ‘도요지의 왕국’이다. 아마도 1억 년 전 중생대 마지막 지질시대인 백악기 때 진안고원이 호수였던 사실과 관련이 깊다. 진안고원에서 도요지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은 진안군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도요지가 120여 개소에 달한다. 진안 도통리·외궁리 초기청자부터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와 백자, 옹기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전북 진안군 백운면 평장리 손내옹기도 옛날 화려했던 진안고원 도자문화의 전통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양질의 도자기가 거미줄처럼 잘 구축된 교역망을 이용하여 널리 유통됨으로써 진안고원의 도자문화가 융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

6. 지명유래 및 주변유적 현황

1) 지명유래

94) 『世宗實錄地理志』에 “鎭安縣磁器所一在馬靈縣南豆彦里一在馬靈縣東東林里 皆品下” 라고 기록되어 있다.

95) 全州大學校 博物館, 2007, 앞의 책.

96) 강원중·김소연·백옥중·신효진, 2012, 「진안 봉곡 도요지」, 『호남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성과』, 호남고고학회, 124-132쪽.

① 동향면(銅鄕面)

진안군의 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면으로 동쪽은 무주군 안성면, 서쪽은 안천면, 남쪽은 장수군 천천면, 북쪽은 진안군 상전면과 맞닿아 있으며, 면소재지인 대량리(大良里)를 비롯하여 6개 법정리를 관할한다. 이곳에 구리를 생산하던 동향소(銅鄕所)가 있었으므로 동향면이라 불리게 되었다.

② 대량리(大良里)

본래 용담군 일동면의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량리와 이동면 대평리 일부를 병합하고 이들 이름을 합하여 대량리로 지칭하였다.

③ 창촌(倉村)마을

덕유산(德裕山) 줄기의 문필봉(文筆峯) 하단에 위치한 마을로서 마을 앞에는 구량천(九良川)이 흐른다. 이 마을은 지금으로부터 약430여 년 전에 진주 소씨(晉州蘇氏)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창촌이란 지명은 마을 내에 다수의 창고가 있었던 데에서 유래하였다.

④ 보촌(保村)마을

지금으로부터 약260여 년 전에 정(丁)씨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마을을 형성하게 된 기념으로 느티나무 1그루를 심었는데 현재 대평들의 풍작(豐作)과 흉작(凶作)을 점(占)치는 나무로 성장하였다. 느티나무의 잎이 피는 정도를 관찰하여 대평들의 풍흉(豐凶)을 점쳤다하여 광풍정(廣豐亭)이라 지칭하였다.

⑤ 구량천(九良川)

구량(九良)은 구리향(銅鄕)의 한자음이다. 구량(九良)이라는 명칭은 본래 구리(銅)가 나는 고장(鄕)이라 해서 구리향이라 불렀는데, 이 음을 한자로 적은 것이다. 하천이 주로 흐르는 지역이 동향면(銅鄕面)이기 때문에 구리향 대신 동향으로 부르면서 구량천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 시대 고지도인 『해동지도』에서 구량천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주변 유적

① 진안 동향면 능금리 외금곡 고분 (鎭安 銅鄕面 能金里 外金谷 古墳)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083

○ 시 대 : 역사시대미상

○ 개 요 : 동향면 소재지에서 능금리로 가는 고갯길에 동향주유소가 있고, 그 주유소를 돌면, 도로 왼쪽에 창녕성공양세효자비(昌寧成公兩世孝子碑)가 있다. 이 비석과 인접하여 비교적 큰 고분이 위치한다.

② 진안 동향면 능금리 외금곡 유물산포지 (鎭安 銅鄕面 能金里 外金谷 遺物散布地)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능금리 2168 일대

○ 시 대 : 선사미상~조선

○ 개 요 : 능금리 외금곡마을 남측으로 동향주유소가 있고, 유물산포지는 이 주유소 남쪽 아래에 있다. 유물산포지 앞쪽으로는 구랑천이 흐르고 있으며, 구랑천이 내려다보이는 밭 경작지에 석기와 백자편이 수습된다.

③ 진안 동향면 대량리 보말 동광터 (鎭安 銅鄕面 大良里 보말 銅鑛터)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산28

○ 시 대 : 근대/일제강점기

○ 개 요 : 동향면 대량리 보촌마을에서 400m 가량 떨어진 남쪽의 산기슭에 위치한다. 일제시대에 동을 캐는 광산이 있었으나, 임도를 내면서 동광터는 완전히 묻혔다. 해방 후에는 한국인에 의해 성업하였다고 하며, 이곳에서 캐낸 동은 마을 입구까지 가마니에 담아내어 장항제련소로 옮겨졌다 한다.

④ 진안 동향면 대량리 창말 유물산포지A (鎭安 銅鄕面 大良里 창말 遺物散布地A)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109-1 일대

○ 시 대 : 고려~조선

○ 개 요 : 대량리 창촌마을 마을회관 뒤쪽의 경작지에 해당한다. 밭에서 골라낸 기와편들이 밭 가장자리에 쌓여 있으며, 토기도 상당량 확인된다. 용담현이 있을 때 이곳에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기와의 문양은 어골집선문, 평행사선문, 화문 등 다양하다.

⑤ 진안 동향면 대량리 창말 유물산포지B (鎭安 銅鄕面 大良里 창말 遺物散布地B)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대량리 685 일대

○ 시 대 : 조선

○ 개 요 : 신송리 명지골에 있는 승유재 중수 이전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기와가 승유재와 주변의 도로, 경작지에 흩어져 있다. 기와는 암, 수키와 다양하며, 문양은 곡집선문, 원문 등이 주류를 이룬다.

⑥ 진안 동향면 성산리 하향 유물산포지B (鎭安 銅鄕面 聖山里 下杏 遺物散布地B)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12-1 일대

○ 시 대 : 조선

○ 개 요 : 성산리 하향마을에서 충렬사를 지나 200m 정도 가다보면 우측으로 농로가 나오는데, 이 길을 따라 100m정도 올라가면 우측 능선에 유물산포지가 자리한다. 유물은 주로 기와편이며, 토기편도 수습된다.

⑦ 진안 동향면 성산리 하향사지 (鎭安 銅鄕面 聖山里 下杏寺址)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성산리 산7 일대

○ 시 대 : 조선

○ 개 요 : 충렬사에서 우측으로 농로를 따라가면 종돈장이 나온다. 그곳에서 동쪽으로 200m 정도의 지점에 절터가 있다. 절터의 중심은 밭 경작지와 숲이 시작되는 경계부위에 있으며, 절터는 밭 경작과 무덤조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밭 경계지점에 초석으로 보이는 대석(大石)이 확인된다. 유물은 주로 밭과 숲의 경계지점에서 확인된다. 주로 기와편이 많으며, 백자편도 있다. 기와의 문양으로는 평행타날문, 곡집선문 등이 있다.

⑧ 진안 동향면 신송리 내유곡 유물산포지A (鎭安 銅鄕面 新松里 內楡谷 遺物散布地A)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1277 일대

○ 시 대 : 조선

○ 개 요 : 신송리 내유곡마을로 들어오는 안다리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내유곡마을에서 북쪽으로 500m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유물산포지는 수침천변의 충적대지인 경작지 일대로 기와, 토기, 옹기편 등의 유물이 수습된다.

⑨ 진안 동향면 신송리 내유곡 유물산포지B (鎭安 銅鄕面 新松里 內楡谷 遺物散布地B)

○ 소 재 지 : 전라북도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1227 일대

○ 시 대 : 조선

○ 개 요 : 신송리 내유곡마을에서 수침마을로 들어가는 어귀에 운봉사가 있으며, 유물산포지는 절과 인접한 경작지 일대에 위치한다. 지표에서는 다량의 백자와 토기편이 수습되었다.